



한국전력 무사웰



정관장 인쿠시



OK저축은행 오메이



페퍼저축은행 시마무라

한국배구연맹

아시아쿼터는 '순항'... 외인 대체 자원은 '난항'

프로배구 남녀 부 모두 교체한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순조롭게 V리그에 적응하는 반면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대신 영입할 선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자부 한국전력이 대체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미들 블로커 무사웰 칸(등록명 무사웰)은 6일 OK저축은행과 홈경기에서 V리그 데뷔전을 치러 블로킹 5개를 포함해 11점을 뽑아내며 합격점을 받았다.

권영민 한국전력 감독은 "리딩 능력이 좋고 손 모양도 나쁘지 않아 도움이 될 것 같



히비 갈린 프로배구 코트

한국전력 무사웰, 데뷔전 맹활약
저축은행 오메이도 순둥이 호평
페퍼시마무라, 대체불가블로커로
정관장 인쿠시는 관중몰이 북적이
인재풀 적어 외국인 교체 빨간불

다. 블로킹도 잘해줘 적응만 잘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며 무사웰에게 기대감을 보였다.

파키스탄 국가대표 경력의 무사웰은 발

목 부상으로 계약 해지된 몽골 국적의 자르갈저트 엔흐에르덴(등록명 에디)의 대체 선수로 영입됐다.

같은 경기에서 무사웰과 코트를 사이에 두고 대결한 OK저축은행의 트렌트 오메이(등록명 오메이)도 대체 아시아 쿼터 선수다.

오메이는 OK저축은행이 작년 4월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 때 지명했던 이란 국적의 매히 젤레 가지아니가 메디컬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자 대체 선수로 한국에 왔다.

신영철 OK저축은행 감독은 시즌 초반 다소 기대에 못 미쳤던 오메이에 대해 "성실한 선수다. 지시한 대로 잘 받아들인다.

민첩성·순발력은 떨어지지만 성실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칭찬했다.

여자부의 교체 아시아 쿼터 선수들도 V리그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

페퍼저축은행이 드래프트 때 1순위로 낙점했던 스테파니 와일라가 시즌 개막 전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수술대 위에 오르자 대신 영입한 일본인 미들 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오는 팀의 최고 '북덩이'다. 일본 국가대표 출신의 베데랑 미들 블로커인 시마무라는 시즌 초반 전광석화 같은 이동공격과 속공으로 지난해 11월 13일 흥국생명전에 한 시즌 개인 최다인 25점을 뽑으며 맹활약했

다. 다른 팀들이 적응을 마치면서 시마무라 효과가 반감됐지만, 시마무라는 여전히 페퍼저축은행의 중양을 책임지고 있다.

정관장이 무릎 수술 여파로 올 시즌 코트에 서지 못한 위파위 시통(등록명 위파위)을 대신해 영입한 몽골 국적의 인쿠시도 성적과 흥행 모두에서 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인쿠시는 4일 흥국생명 경기에서 한 경기 개인 최다인 16점을 사냥했고 수비에서도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 특히 MBC 배구예능 프로그램인 '신인 감독 김연경'에서 김연경 감독의 애제자라도 큰 인기를 끌었다.

반면 외국인 선수 교체 작업은 난항이

다. OK저축은행은 외국인 주포 디미트로 디미트로프(등록명 디미트로프)가 기대에 못 미쳐 대체 선수를 물색했지만 인재 풀이 넓지 않아 새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고 있다.

여자부 현대건설 역시 무릎 통증을 안고 뛰는 카리 가이스버거(등록명 카리) 대체 선수를 알아보려 했지만 대체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의 프로 시즌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을 신청했던 선수 범위 안에서 대체 선수를 골라야 하므로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연합뉴스



포츠머스 SNS 캡처

양민혁, 램퍼드 감독 품으로... 2부 1위팀 코번트리 임대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양민혁(19살)이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1위 코번트리 시티에서 새 출발한다. 양민혁의 원소속 구단인 토트넘 홋스



퍼는 7일(한국 시간) 양민혁을 올 시즌 잔여 기간 코번트리에 임대한다고 발표했다.

챔피언십 2위로 강등권 언저리에 있는 포츠머스에서 올 시즌 전반기를 소화한 양민혁은 이로써 후반기를 1위 코번트리에 보

내게 됐다. 코번트리는 잉글랜드와 웨일의 '레전드' 프랭크 램퍼드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램퍼드 감독은 현역 시절 웨일의 3차례 프리미어리그(EPL) 우승에 기여했으며 잉글랜드 대표팀전 106경기 29골을 기록했다.



알카라스 vs 신네르

10일 인천 아레나서 세계 1·2위 빅매치



AFC-연합뉴스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와 안니코 신네르(이탈리아)가 벌이는 현대카드 슈퍼매치 14가 10일 인천 아레나에서 열린다.

알카라스와 신네르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 2위 선수들

로 국내에서 맞대결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생 알카라스와 2001년생 신네르는 최근 2년간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우승 타이틀을 4개씩 양분했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선미디어

治人治世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